## 종영 앞둔 대박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스토브리그'의 성공비결



북한과 야구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내세워 시청자 사랑을 받은 두 드라마가 14일과 16일 화려하게 막을 내린다. tvN '사랑의 불시착'과 SBS '스토브리그'다.(왼쪽부터) 사진제공 | tvN·SBS

# 1 디테일 2 비주류의 힘 3 스타 재발견

**'스토브…' 야구 비리 등 현실감 묘사**
**'…불시착' 의상·사투리 전문가 조언**
**스포츠·북한 '비인기 소재' 편견 극복**
**하도권·채종협 등 조연 열연도 눈길**

주말 안방극장의 두 주역,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와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14일과 16일 나란히 막을 내린다. 각각 17%(이하 닐슨코리아, 1월 17일 기준)와 17.7%(2월9일 기준)라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며 간만에 드라마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닮은 듯 다른 매력의 두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 시청자 공략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까.

**●디테일·비주류·재발견의 힘**

'봉테일' 봉준호 감독도 울고 갈 세밀한 묘사의 힘이다.

프로야구단 드림즈를 운영하는 사무국(프런트) 이야기를 조명한 '스토브리그'는 구단 사이의 선수 트레이드, 스카우트 비리 등 실제 사례와 선수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았다. 오랜 야구팬인 이신화 작가가 그동안 모아온 방대한 관련 자료가 여기에 녹아들었다. 이 같은 현실감을 향한 집념이 시청자뿐 아니라 야구팬들마저 열광하게 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극중 무대인 북한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에 공을 들였다. 은밀한 경로로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이나, 한국의 각종 생활용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담겼다. 이를 위해 군 고위관계자부터 의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탈북자들과 탈북자 출신 보조작가, 북한 사투리 전문가가 힘을 보탰다. 덕분에 "에미나이(계집애)" "후라이 까지 마라(거짓말 하지 말라)" 같은 사투리 대사와 '북한 생일 축하송'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발판삼아 두 드라마는 비주류 소재라는 편견을 뚫고 흥행에 성공했다. 스포츠와 북한 배경 모두 드라마 시장에서는 그동안 환영받지 못한 소재였지만, 단번에 15%대 시청률을 넘어 반전의 주인공이 됐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13일 "두 드라마의 흥행은 대중이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스포츠, 북한뿐 아니라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소재를 내세운 드라마들이 활발하게 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스타도 '재발견'됐다.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 역을 맡은 조한선과 '사랑의 불시착'에서 능청스러운 사기꾼을 연기한 김정현이 그 주인공이다. 드림즈 소속 선수인 하도권, 채종협과 '사랑의 불시착' 속 '민경대대 5중대'로 등장한 양경원, 유수빈, 이신영 등도 이번 기회에 대중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됐다.

**●로맨스 있고 없고·신인 VS 베테랑 작가·시즌2?**

'스토브리그'는 연애 이야기를 싹 빼고, 오로지 치열한 프런트의 세계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신화 작가가 "야구팀의 변화에 이어 더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바뀌려는 야구계 곳곳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랑의 불시착'은 판타지 로맨스 장르에 충실하게 모든 이야기를 주인공 현빈과 손예진의 로맨스에 집중시켰다. 북한이란 배경이나 스위스 로케이션도 이들의 로맨스를 더욱 애절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였다.

신인작가와 베테랑작가의 대결 구도도 흥미로웠다. 이신화 작가는 '스토브리그'가 첫 드라마다. 다큐멘터리 보조작가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2016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타고 드라마 작가가 됐다. 이후 3년이나 편성을 기다렸다 '빵 터진' 드라마로 단번에 스타 작가가 됐다. SBS '별에서 온 그대'(2013), KBS 2TV '프로듀사'(2015), SBS '푸른 바다의 전설'(2016) 등으로 드라마 한류를 이끈 박지은 작가는 '사랑의 불시착'으로 저력을 재입증했다.

시즌2 가능성은 엇갈린다. 로맨스 장르 특성상 극중 현빈과 손예진의 결말과 함께 '사랑의 불시착'은 모든 이야기를 완결할 전망이다. 하지만 '스토브리그'는 프로야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즌제를 겨냥할 수 있는 드라마다. 제작사 길픽쳐스와 방송사도 시즌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가도 "아주 작은 씨앗 정도의 아이디어만 있다"면서도 "드라마를 향한 애정을 발판삼아 좋은 생각이 차오르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오스카 캠페인 비용 100억? 마케팅 비용 혼동"

**'기생충' 곽신애 대표가 말하는 아카데미**

**"지난해 수상작 '로마'는 290억 지출**
**기프트백 논란? 올해는 아예 없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상을 겨냥해 시상식에 앞서 전년도 가을부터 각 영화 제작사들이 홍보 활동을 펼치는 이른바 '오스카 캠페인'과 관련해 '기생충'이 쓴 비용,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이 후보로 오르면서 아카데미상 주관단체인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각 후보자들에게 주는 '기프트백'의 실체 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곽신애 대표

**●"캠페인 비용? 공개할 수 없다"**

'오스카 캠페인'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매년 2월에 앞서 그 전 해 가을부터 수상을 겨냥해 각 영화사가 펼치는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일컫는다. 특히 미국 LA지역에서 일정 기간 상영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심사 대상이 되는 규정상 각 영화는 후보자(작) 지명과 수상을 노리며 가을 개봉에 나선다.

실제로 '기생충'도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개봉해 관객을 만났다. 이후 봉준호 감독과 주연 송강호가 현지로 날아가 각종 영화제와 시상식에 참석하고 시사회와 파티,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등을 열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송강호가 코피를 쏟는 등 강행군으로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십억원부터 최대 100억원이 넘는 돈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작 '로마'의 경우에는 최소 29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썼다고 미국 버라이어티가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이를 위해 외부 자문요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생충'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을까? 영화계 안팎에서는 대략 100억 원 가량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이에 대해 '기생충'의 제작자인 바른손 E&A 곽신애 대표는 "억측된 금액이 서로 다른 버전으로 마치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면서 "북미 개봉 P&A(마케팅 비용)와 혼동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버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캠페인을 벌인 "다른 스튜디오들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영역이다"고 못박았다.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부터 마카롱까지?**

AMPAS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이들에게 시상식에 앞서 선물을 준다. '기프트백(Gift bags)'라 불리는. 일종의 선물세트다. 여기에는 명품 주얼리 브랜드 제품부터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 스파 숙박권 등 다양한 티켓과 현물이 포함된다. 시가 규모 2억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대한 관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를 통해 '기프트백'에 관한 내용이 퍼져 나가면서 더욱 커졌다. 여기에는 심지어 고급 초콜릿과 마카롱까지 포함돼 있다. 봉준호 감독 등 '기생충'의 주역들은 이를 받았을까? 곽 대표는 "시상식 참석자들에게 기프트백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 아카데미에는 없었다. 그 리스트는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트러블 메이커' 남태현 라이브방송서 눈물 호소



남태현

그룹 사우스클럽의 멤버 남태현(26)이 갖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생활 문제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뒤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10일부터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돌발행동을 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남태현은 라이브 방송에서 "제발 우리 음악 좀 좋아해 달라"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한 후 "하루 12정의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총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13일 "(음악) 창작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 "현재 안정을 되찾았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남태현 역시 SNS를 통해 "며칠 동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낭떠러지 앞에서 음악과 대화하는 방법은 최선이 아님을 알았다"며 "봄이 끝나기 전에 최선의 음악으로 인사하겠다. 조금 더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팬들은 "악어의 눈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음악보다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게 먼저다. 제발 남이 미워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미움 받을 짓을 하지 말라" "SNS와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모두 끊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등 충고를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경력직 입사자 대상 축하금 지급

## 청년들의 구직 응원…면접 수당 지원하는 기업은?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 홈페이지에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1만 원의 면접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는 올해 5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위 사업은 면접 참가에 드는 비용이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비는 물론 사진 촬영비 외에도 최근에는 의류비·헤어·메이크업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청년 면접 수당' 지원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재 채용을 위해 파격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면접비 지급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수많은 기업들 중 에듀윌을 선택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사 지원자에게 1차 면접에서 5만 원, 2차와 3차 면접에서 10만 원으로 총 25만 원의 면접비를 지급하는 에듀윌은 이 외에도 경력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입사 축하금을 지급, 대리 이상의 경력직 입사자에게 연봉 외 최대 5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 제도와 신규 입사자 교육 후 퇴사하는 직원에 해당 기간의 급여 외 2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굿바이 보너스'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 | | | | | | | |
|---|---|---|---|---|---|---|---|---|
| | | | 8 | | 2 | | | |
| | | 4 | 9 | | 5 | 1 | | |
| | 6 | 7 | | | | 9 | 8 | |
| 3 | 2 | | | 9 | | | 1 | 7 |
| | | | 7 | | 1 | | | |
| 1 | 7 | | | 2 | | | 9 | 8 |
| | 9 | 2 | | | | 3 | 7 | |
| | | 3 | 5 | | 7 | 8 | | |
| | | | 2 | | 9 | | | |

| | | | | | | | | |
|---|---|---|---|---|---|---|---|---|
| | 2 | 3 | | | 6 | | 8 | |
| 7 | 5 | | | 2 | | | 3 | 1 |
| | | | 1 | | 7 | | | 5 |
| 3 | | 2 | | | | 5 | | |
| | 1 | | | | | | 4 | |
| | | 4 | | | | 9 | | 3 |
| 4 | | | 7 | | 5 | | | |
| 2 | 6 | | | 4 | | | 9 | 7 |
| | 3 | | 2 | | | 1 | 5 | |

**■ 스도쿠정답**

| | | | | | | | | |
|---|---|---|---|---|---|---|---|---|
| 7 | 5 | 9 | 6 | 2 | 3 | 8 | 4 | 1 |
| 6 | 1 | 3 | 5 | 4 | 7 | 8 | 2 | 9 |
| 4 | 9 | 2 | 1 | 8 | 6 | 3 | 7 | 5 |
| 1 | 7 | 6 | 3 | 2 | 4 | 5 | 9 | 8 |
| 8 | 4 | 9 | 2 | 5 | 1 | 7 | 6 | 3 |
| 3 | 2 | 5 | 9 | 6 | 8 | 4 | 1 | 7 |
| 5 | 6 | 7 | 4 | 1 | 3 | 9 | 8 | 2 |
| 2 | 8 | 4 | 9 | 7 | 5 | 1 | 6 | 3 |
| 9 | 3 | 1 | 8 | 6 | 2 | 7 | 5 | 4 |

| | | | | | | | | |
|---|---|---|---|---|---|---|---|---|
| 8 | 3 | 7 | 2 | 6 | 9 | 1 | 5 | 4 |
| 2 | 6 | 5 | 3 | 4 | 1 | 8 | 9 | 7 |
| 4 | 9 | 1 | 7 | 8 | 5 | 3 | 2 | 6 |
| 6 | 8 | 4 | 5 | 9 | 2 | 7 | 1 | 3 |
| 5 | 1 | 9 | 8 | 7 | 3 | 6 | 4 | 2 |
| 3 | 7 | 2 | 6 | 9 | 4 | 5 | 1 | 8 |
| 9 | 4 | 8 | 1 | 3 | 7 | 2 | 6 | 5 |
| 7 | 5 | 6 | 9 | 2 | 8 | 4 | 3 | 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